

지명을 통해 본 재해인식 및 방재 가능성 탐색*

김선희** · 박 경***

A Study on Disaster Recognition and Feasi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Based on Place Names*

Kim, Sun Hee** · Park, Kyeong***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유형과 분포, 사례지역 조사를 토대로 지명을 통한 재해 및 방재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한국지명총람』을 대상으로 106개의 검색 지명어에서 37,901개의 지명을 추출하였으며,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지명의 유형별 빈도는 지형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이 월등히 많았고, 특히 호우, 범람, 침수 재해와 관련된 지명이 탁월하였다. 지역적 분포는 영·호남 지역의 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水, 沙, 野, 雨, 湫 등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 반면 돌병, 구렁, 여울, 灘, 방죽, 堤, 池 등은 지역차가 커서 입지 및 지형적 특성이 지명에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지역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기상현상과 지형조건이 결합된 범람 및 침수 재해의 가능성이 높아 수계와 곡지형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어 : 지명, 재해, 방재, 빈도, 분포

Abstract : Patterns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disaster-related place names have been analyzed to confirm the recognition and probability of disaster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106 terms and 37,901 place names related to disaster and prevention measures have been collected from the Korean gazetteers 『Hanguk Jimyeong Chongnam』. Based on this, some conclusions have been drawn; firstly, place names related to the geomorphic processes and prevention measures are more common than any other disasters; secondly, place names related to heavy rain, flooding and drowning are most common. Analysis of the regional distribution pattern shows that disaster-related place names are most common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and general place names reflecting environmental concern such as water, sand, plain, rain and dam are distributed evenly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however, place names such as dumbong, gureong, yeoul, tan(灘), bangjuk, je(堤), and ji(池) are restricted to the specific region, which shows that place names reflects the locational and topographic variations. Case study indicates that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focused on tributaries and small valleys considering that disasters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weather and landform conditions are most common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Key Words : place names,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requency, distribution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 속담에 “지명보고 이사 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지명이 인간과 환경의 교섭에 의해 나고 성장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자산으로(남영우, 1997) 그 땅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지명은 장소를 구별하고 표시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

니라 명명 주체인 인간의 의식과 객체로서 장소가 가지는 특성이 함축된 의미의 결합체이며(정진원, 1982),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유산이자 고유 의 지역성을 가진 지리적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둔 환경지각의 산물로서 지명에는 어떤 형태로든 거주공간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지와 감정, 느낌, 이미지,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geomentality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선희, 2008).

특히 인간의 거주 및 생활의 토대가 되는 자연

* 본 연구는 2009년도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sunnykim22@gmail.com)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kpark97@sungshin.ac.kr)

환경은 지형이나 물, 기상요소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뿐 아니라 홍수, 가뭄, 한파, 태풍, 해일, 폭설, 산사태, 지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생활에 피해를 줌으로써 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사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해 기록을 정리한 『朝鮮の災害』¹⁾에 따르면 그 피해가 가장 빈번했던 가뭄을 비롯하여 황해(蝗害, 메뚜기에 의한 재해), 홍수, 폭풍, 지진 등에 대한 기록이 상당수 발견된다. 더욱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형적 지각과 경험은 짧게는 수백년에서 길게는 천년 넘게 이어져 온 문화원형으로서의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 지명의 명명기반을 보면 삶의 터전인 땅의 모양이나 위치, 방향 등은 물론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지리적 특성과 환경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자연지명어가 가장 많으며, 그 가운데는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현상과 관련이 깊은 지명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국립방재연구소, 2009).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은 물론 자연환경 시스템 전반에서 이상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의 경제적, 인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90% 이상이 악기상에 의한 기상재해로(심우배, 2005), 통계개발원(2008)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7~2006년)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인명피해는 119명, 재산피해는 1조 9,642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러한 기상재해가 지형, 지질, 토양, 식생 등을 변화시켜 보다 심각하고 광범위한 환경재해로 이어지면서 근래 들어 기상예보 기술의 발달 및 재해대응 시스템 구축 등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발생 원인 분석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의 재해 및 방재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을 뿐 아니라 주제와 방법 면에서도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주로 강조되어 왔다. 또한 학술부문에서도 단기간의 재해발생 자료에 기초한 정량적 분석에 의존해 오면서 재해 및 방재에 대한 전통적 경험과 지각이 반영된 다양한 역사문화 자료의

활용과 그에 대한 정성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명과 재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재해 취약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향성 모색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환경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과 지각이 지명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환경지각의 산물이자 문화원형자산인 지명을 통해 재해 및 방재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시작 단계의 연구이다. 이에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재해 및 방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지명을 추출하여 유형별 빈도와 지역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례지역에 적용, 비교 검토함으로써 지명 속에 내재한 재해인식 및 개연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재해 취약 지역과 유형 선정 및 방재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는 남한을 대상으로 구축된 방대한 지명 데이터베이스에서 재해 및 방재와 관련된 지명을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지도, 문헌, 인터넷서비스 자료 등 우리나라 지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방대한 지명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지명총람』²⁾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한 전역의 지명을 도별로 정리한 이 책은 한자 및 한글 지명, 옛 지명 등은 물론 지명의 유래와 이명, 변천과정 등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지명의 양적, 질적 분석에 유리하다. 그리고 지명 검색을 위한 원자료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의 지명 데이터베이스³⁾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지명과 재해의 개연성 및 재해발생의 경험과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례지역 연구에서는 재해지명 자료와 지명유래집, 재해발생 통계자료, 침수지도, 위성사진, 1910년대 지형도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총 631,233개의 지명을 대상으로 추출된 재해 및 방

재 관련 지명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사례지역의 경험적 자료에 대한 정성적 이해로 구분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큰 재해 유형과 대기·물·암석 등의 지구환경 구성요소에 기초한 재해 발생 원인 및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 추출을 위한 검색 지명어를 선정하였다. 처음 재해 및 방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검색 지명어는 모두 123개였으나 1차 검색 결과 熱, 淡, 凍, 돌풍, 간풍, 곡풍, 洪水, 설해, 雹, 우박, 가뭄, 뇌우, 溢, 수해, 합내, 합계, 물도리 등은 관련 지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1개 이하로 검색 지명어에서 제외되면서 최종적으로 106개가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해 유형과 검색 지명어의 분류는 그 발생 원인과 현상, 입지 등이 대단히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명

확한 구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해발생의 포괄적인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크게 기상 및 지형 재해로 구분하였고, 검색 지명어는 기상재해 50개, 지형재해 43개이며, 방재와 관련된 지명어가 13개이다(표 1).

다음은 검색 지명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명을 어구조와 상관없이 추출하여 분석 대상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지명이 풍부한 『한국지명총람』의 자료적 특성을 반영하고 가능한 다양한 지명을 추출하고자 風과 바람, 洪水와 홍수, 霧와 안개, 防禦과 방축 등과 같이 한자와 함께 한글 지명어도 포함하였으며, 반면에 堤堰과 堤防 등 같은 지명어가 중복 추출되거나, 지명의 의미가 재해와 무관한 경우 등은 비교 검증을 통해 중복을 피하거나 삭제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이들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및

표 1. 재해유형별 검색 지명어

분 류	지 명 어
기상 재해	폭염 (熱), (炎), 暑, 溫
	냉해 寒, 찬물, (凍), 冷, 氷, 얼음
	풍해 風, 바람, (돌풍), 태풍, (간풍), (곡풍)
	황사 黃沙, 황사
	호우 (洪水), 홍수, 洪, 雨, 큰비, 작은비
	서리 霜, 露, 이슬
	안개 霧, 안개
	설해 雪, 눈, 설피, (설해), (雹), (우박)
	가뭄 旱, 乾, (가뭄), 가물, 마른, 한발
	낙뢰 震, 벼락, 번개, 電, 천둥, 雷, 우레, 우뢰, (뇌우)
	화재 火, 큰불, 작은불, 불탄
	해일 波, 浪, 파랑, 파도
	염해 鹽, 소금, 짠물
	조해 潮
	지형 재해
낙석 낙석, 落, 崖, 낭떠러지, 벼랑, 절벽	
범람 및 침수 汎, 濫, (溢), 水, 큰물, 작은물, (수해), 수재, 합수, 합강, 양수, 합천, (합내), (합계), 합포, 물미, (물도리), 물님이, 물탕, 드르니, 灘, 여울, 늪, 濕, 沈, 陷, 沒, 구렁, 구덩, 둠벙, 수렁, 坪, 野, 原, 둔덕, 버덕, 두들, 두둑	
기타 沙, 砂, 풍혈	
방재 堤堰, 堤防, 防禦, 堤, 堰, 防, 築, 淤, 이수지, 방죽, 방축, 뚝, 둑	

주: ()는 1차 검색 결과 관련 지명이 1개 이하로 최종 검색 지명어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반도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지명과 재해의 개연성 및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재해 지명의 입지와 환경적 특성, 해당지역의 다양한 경험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사례지역은 지명과 재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에 취약한 하천 및 평야 지역 가운데 경험적 자료가 풍부한 전북 김제와 충남 연기 지역을 선정하였고, 2차례의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인간은 일상적으로 지리적 세계와 접촉하고, 그 안에서 사고하며 행동한다. 지명은 장소에 대한 심상으로부터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현상에 이르기까지 거주공간의 지리적환경(geo-environment)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인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자연관과 환경관이 함의된 지명이 지역민의 재해인식과 경험, 그 대응양상 등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재해 및 방재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 학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90년 이후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관심은 그 주제와 방법 등에서 다소 제한적이었다. 즉 국가재난관리의 필요에 따라 정부 행정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관련 실무학과 등을 중심으로 재해분류와 발생 현황, 재난평가와 관리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남궁근, 1995; 박광국, 1997; 김태운, 2000; 윤명오, 2004; 소방방재청, 2009 등). 이에 반해 지리학, 토목공학, 농경제학, 환경생태학 등을 중심으로 한 학술적 측면에서는 재해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공간적 분포와 특성, 환경적 영향과 변화, 재해대응 양상 및 방법 등 보다 다양한 주제와 접근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리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전통적 수리시설에 대한 연구(남궁봉, 1975; 옥한석, 1983; 김현희·최기엽, 1990; 최영준·홍금수, 2003; 정치영, 2008 등)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태풍, 안개, 이상기온, 서리현상, 해수면 상승과 해일, 집중호우, 산사태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재해 현상을 지리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발생빈도와 분포, 영향 등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이은걸·이현영, 1998; 조혜진, 2003; 권영아, 2006; 장동호, 2006; 이광률, 2006; 배선헌, 2007; 이승호·이경미, 2008, 박정재, 2009 등). 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대개의 연구가 활용 자료의 시간범위가 비교적 짧고, 내용면에서도 재해원인과 발생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인식, 옛사람들의 경험과 대응, 축적된 사료에의 접근 등 역사·문화적 이해와 연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선시대의 다양한 편년체 사료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기상재해 특성과 관민의 대응양상을 규명한 연구(김오진, 2008), 전통지리적 시각에서 연안해안의 사빈과 사구침식의 특성을 밝히고 풍수론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장정환, 2009), 삼국사기를 통해 고대 한반도의 자연재해 유형과 특성, 가뭄주기 등을 분석한 연구(윤순옥·황상일, 2009) 등이 발표되면서 지금까지의 재해 연구 시야를 보다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명 연구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시각이 보다 다양한 관점과 주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리학 분야에서는 교과서상의 지명을 분석한 연구를 비롯하여 단위 지역의 지명 분류와 분포 특성을 밝힌 연구, 지명의 지역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 지명의 어원과 역사적 변천을 분석한 연구, 지명과 환경 요소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지명 표기 및 오류를 분석한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김선희 등, 2009). 이 가운데 특히 지명과 문화, 풍토, 기후, 지형, 경관 등과의 관계를 다룬 일련의 연구들(Miller, 1969; Tuan, 1974; Lowenthal, 1975; 정진원, 1982; 김연옥, 1986; 김지은, 2001; Nadia, 2008; Levinson, 2008)은 언어와 환경지각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함으로써 지명을 통한 재해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시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명과 재해를 연계한 연구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히고자 한 시도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옛 지도와 문헌,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재해유형에 따른 관련 지명을 추출하여 재해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관계와 특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

(Park & Kim, 2010)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국내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술적, 실용적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해외의 경우, 일본은 자연재해 현상을 이해하고, 재해경감에 효과적인 방재지도(hazard map)를 제작하는데 지명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최윤수 등, 2007), 중국도 국가의 재난관리 및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 1996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 가운데 지형, DEM,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지명이 중요한 레이어로 인식, 활용되고 있어서(Wang, 2006) 특히 주목된다. 또한 구미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명과 재해에 대한 온톨로지적 연구사례들(Ko and Yao, 2000; Ferland, 2009)은 특정 장소의 역사, 지리, 환경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지명이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해 및 방재 연구의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가운데 그 빈도가 가장 높고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기상재해는 대기환경을 구성하는 기온, 바람, 강수 등의 기후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중 태풍과 관련된 피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승수·장은미, 2009). <표 2>에서와 같이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기상재해 관련 지명은 14개 재해유형에 속하는 50개의 검색 지명어에서 모두 4,953개의 지명이 확인, 추출되었다. 재해유형별 관련 지명의 빈도를 보면 냉해와 관련한 지명이 945개 가장 많았는데 관련 지명어 5개 모두 고르게 높은 빈도를 보여 더위에 비해 추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풍해와 관련한 지명이 742개, 염해 603개, 낙뢰 482개, 화재 451개, 호우 351개, 폭염 290개, 해일 287개, 가뭄 251개, 설해 239개, 안개 148개, 서리 82개 순으로 관련 지명의 비중이 높았고, 황사와 조해는 관련 지명이 각각 41개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재해유형의 발생 원인을 보면 호우·서리·안개·설해·가뭄 등 강수와 관련된 지명이 기온이나 바람 등과 관련된 지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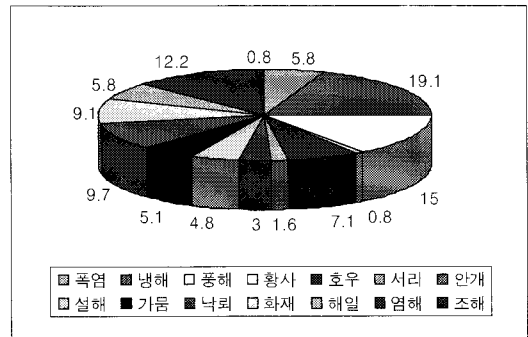


그림 1.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유형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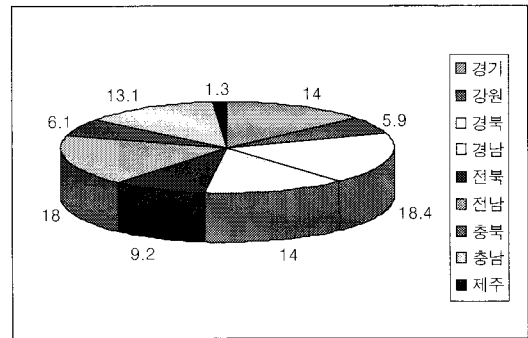


그림 2.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지역적 분포

또한 확인된 지명 개체수가 100개 이상인 기상재해 관련 지명어로는 鹽(482), 바람(401), 火(363), 寒(350), 風(339), 벼락(311), 溫(288), 冷(263), 乾(201), 洪(200), 찬물(178), 雪(176), 波(147), 소금(118), 雨(116), 氷(109), 浪(106), 안개(104) 등으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 이 가운데 鹽, 소금 등과 같이 인간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현재는 재해 개연성이 낮은 지명어도 있으나 대다수 지명어들은 강수와 바람, 저온현상 등에 기인한 재해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빈번하게 경험해 오면서 깊게 인식되어 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 재해유형이 호우, 태풍, 폭풍, 폭설 등인 것과도 거의 일치한다(소방방재청, 2009). 이 밖에도 번개(73), 불탄(62), 눈(56), 얼음(45), 露(45), 霧(44), 潮(41), 雷(35), 霜(30), 파랑(30), 황사(26), 가뭄(24), 電(24),

지명을 통해 본 재해인식 및 방재 가능성 탐색

표 2.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분포

유형	지명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폭염	暑	0	1	0	0	0	1	0	0	0	2
	溫	43	12	47	42	17	42	12	68	5	288
냉해	寒	23	49	71	26	40	52	52	37	0	350
	찬물	5	2	68	75	10	6	10	2	0	178
	冷	76	7	53	33	12	19	6	56	1	263
	氷	22	4	29	16	5	10	11	12	0	109
	얼음	1	1	11	11	3	17	1	0	0	45
풍해	風	19	0	84	53	34	87	23	36	3	339
	바람	25	25	90	60	36	123	20	20	2	401
	태풍	0	0	2	0	0	0	0	0	0	2
황사	黃沙	1	0	1	4	1	1	0	3	4	15
	황사	9	1	8	6	0	0	2	0	0	26
호우	홍수	10	0	0	0	10	2	0	0	0	22
	洪	35	18	33	10	15	20	10	58	1	200
	雨	17	12	26	14	23	14	5	3	2	116
	큰비	1	1	0	0	0	1	0	0	1	4
	작은비	0	1	2	1	0	4	0	1	0	9
서리	霜	10	3	2	7	2	6	0	0	0	30
	露	2	3	5	17	1	10	1	5	1	45
	이슬	1	1	1	1	1	1	1	0	0	7
안개	霧	1	7	15	10	1	5	5	0	0	44
	안개	25	4	4	26	2	31	2	9	1	104
설해	雪	34	17	24	14	21	31	16	17	2	176
	눈	14	4	7	14	1	5	2	7	2	56
	설피	1	3	0	0	0	0	2	0	1	7
가뭄	旱	2	1	2	1	0	1	0	0	0	7
	乾	34	1	53	6	24	33	17	32	1	201
	가물	6	4	3	3	0	0	0	0	8	24
	마른	9	0	0	3	1	2	1	1	0	17
	한발	0	0	0	0	0	2	0	0	0	2
낙뢰	震	0	1	2	1	1	0	0	5	0	10
	벼락	60	36	47	26	46	8	56	32	0	311
	번개	16	4	19	7	4	9	2	12	0	73
	電	2	0	6	7	0	7	1	1	0	24
	천둥	2	1	2	0	0	4	2	4	1	16
	雷	3	3	15	2	1	3	3	4	1	35
	우레	0	0	0	0	0	0	2	0	0	2
	우뢰	4	0	1	0	0	0	6	0	0	11
화재	火	41	40	90	72	32	41	9	33	5	363
	큰불	1	0	1	5	4	5	0	0	1	17
	작은불	0	0	0	4	2	3	0	0	0	9
	불탄	7	2	25	14	3	2	3	6	0	62
해일	波	6	11	12	13	24	38	5	29	9	147
	浪	23	9	10	18	13	17	3	11	2	106
	파랑	0	0	6	5	8	6	4	0	1	30
	파도	0	0	0	0	0	0	0	4	0	4
염해	鹽	89	3	20	45	29	154	9	130	3	482
	소금	1	0	11	13	22	56	0	9	6	118
	짠물	2	0	0	0	0	1	0	0	0	3
조해	潮	9	0	3	7	8	10	0	4	0	41
계		692	292	911	692	457	890	304	651	64	4,953

홍수(22), 마른(17), 큰불(17), 천둥(16), 黃沙(15), 우뢰(11) 등이 관련 지명 개체수 1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지역적 비중을 보면 총 4,953개 지명 가운데 경북이 91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 경남, 경기,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순으로 지명수가 많았다(그림 2). 전체적인 분포 특징은 지역의 면적과 인구, 경지 규모가 크고 농업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도의 경우 국토 남단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 연 강수량이 많고, 바람과 태풍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 관련 지명의 비중이 월등히 낮았다. 실례로 경상도와 제주도의 비중은 각각 32.4%와 1.3%로 큰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전체 지명수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육지에 비해 방언이 뚜렷했던 제주도에서 바람을 ‘보름’, 가뭄을 ‘고뭄’으로 표기하는 등의 지역별 사투리나 방언이 본 연구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지명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영·호남의 경우에도 풍해, 염해, 해일, 조해 등은 전라도가 우세한 반면 냉해, 가뭄, 화재 등과 관련한 지명은 경상도가 탁월하여 상이한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폭염, 황사, 호우, 서리, 안개, 설해, 낙뢰 등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국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해 유형별 지명어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보다 다양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명의 지역적 분포 차이가 뚜렷한 사례로

풍해와 관련된 바람과 風은 전남과 경북, 냉해와 관련된 찬물과 冷은 경상도와 경기도, 충남 등지에서 탁월하게 나타났다. 건조현상과 관련이 깊은 乾과 火, 불탄 등은 경상도 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 중 火 지명어는 경상도 지역에서 평야를 지칭하기도 하여 기상과 지형적 특성이 모두 반영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호우현상과 관련이 있는 洪은 충남과 경기, 경북, 안개는 전남, 경남, 경기도 등에서 많이 나타났고, 鹽, 波, 浪, 潮 등은 모두 전남, 충남, 전북, 경기 등 해안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 각 지역의 기후 및 지형,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부지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 溫과 북부지역에서 우위를 보인 寒 등은 지역 내 남북 차이를 보여준 사례로 溫 지명의 경우 충남이 68개, 충북이 12개인 반면 寒 지명은 경북이 71개, 경남이 26개로 대조를 보였다. 셋째, 벼락, 雪, 雨, 氷 등은 다소간의 지역적 차이는 있었으나 전국에서 보편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우였다. 그리고 개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홍수는 경기도와 전북, 露는 경남과 전남, 霧, 번개, 雷, 불탄 등은 모두 경상도에서 우세하게 나타났고, 霜은 충청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도 가뭄은 제주와 경기, 마른은 경기, 우뢰는 충북, 소금은 전남 등지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그림 3).

3. 지형재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환경으로서 지형은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활공간으로서 인간생활에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지형 형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외적, 내적 영력과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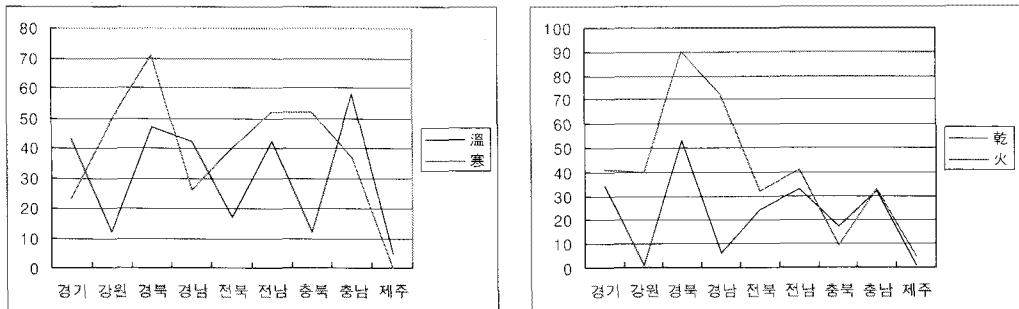


그림 3. 溫과 寒, 乾과 火 지명어의 지역적 분포

지명을 통해 본 재해인식 및 방재 가능성 탐색

의 복합적 작용으로 재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에 그 파괴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곡저 및 해안저지, 범람원, 삼각주, 선상지성 평야, 하안지대 등의 지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김주환·권동희, 1992), 여기에 기상재해와의 결합으로 그 피해 규모와 범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전체 지명 가운데 산사태, 낙석, 범람 및 침수 등의 지형재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명은 모두 17,357개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한 검색 지명어 43개 항목을 토대로 확인, 추출된 결과이며, 전체 재해 관련 지명 22,310개의 77.8%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상재해 관련 지명에 비해 약 3.5배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 지명의 명명기반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요소에서 유래한 지명 가운데 지형이나 입지 여건에 기초한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촌락의 형성과 발달이 토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유형으로 보면 범람 및 침수 재해와 관련된 지명이 33개 검색 지명어에서 15,065개가 확인되어 전체 지형재해 관련 지명의 86.8%를 점유하였으며, 그 외 기타 토사와 관련된 지명이 2,092개로 12.1%, 낙석 관련 지명이 196개로 1.1%, 산사태 관련 지명이 7개로 0.04%의 점유율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형재해 관련 지명 가운데 개체수가 100개 이상인 지명어 중에는 水(5,489), 坪(4,735), 沙(1,914), 둠병(960), 구렁(759), 野(540), 여울(447), 灘(377), 늪(321), 源(270), 물탕(234), 버덩(231), 砂(170), 落(108)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그림 4).

이 가운데 여타 지명어와는 현저한 빈도 차이를 보이는 水와 坪 등은 보편적이면서 또한 이상적인 생활환경기반으로서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물)둠병, (진)구렁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 지명어들은 범람 및 침수의 가능성이 높은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이 밖에도 두둑(99), 둔덕(86), 수렁(86), 양수(64), 합수(57), 구덩(57), 崖(53), 물미(41), 두돌(35), 큰물(31), 沒(28), 합강(25), 沈(24)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그

중에 버덩, 두둑, 두돌 등은 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칭하는 지명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강이나 하천의 합류부와 관련된 지명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조강봉,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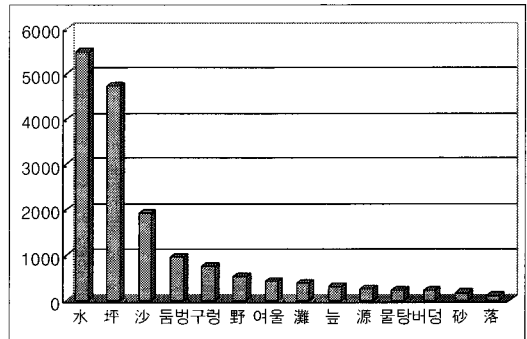


그림 4. 개체수 100개 이상의 지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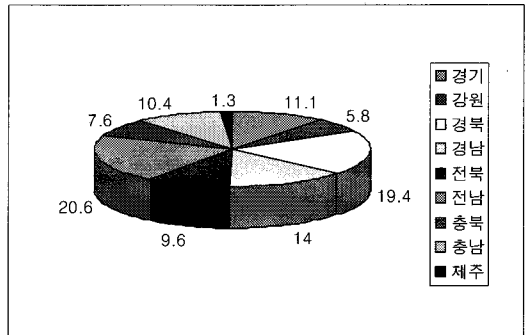


그림 5. 지형재해 관련 지명의 지역적 분포

다음으로 지형재해 관련 지명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총 17,357개 지명 가운데 전남이 3,584개로 20.6%의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서 경북, 경남, 경기,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순으로 지명수가 많이 나타났다(그림 5). 영·호남 지역의 비중이 높은 이러한 분포 양상은 기상재해 관련 지명에서와 같이 지역별 면적과 인구, 경지 규모, 촌락의 발달 등에 기초한 전체 지명수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특징과는 달리 지형재해의 유형 및 지명어의 지역적 분포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먼저 가장 많은 지명수가 확인된 범람 및 침수

표 3. 지형재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분포

유형	지명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산사태	沙汰	3	2	1	0	0	0	0	1	0	7
낙석	낙석	0	0	0	0	0	2	0	0	0	2
	落	13	5	23	12	16	25	9	5	0	108
	厓	8	2	19	2	1	5	8	8	0	53
	낭떠러지	10	0	0	0	0	0	0	5	0	15
	벼랑	5	2	1	0	0	0	4	0	0	12
	절벽	0	0	4	0	2	0	0	0	0	6
범람 및 침수	汎	0	0	2	0	0	0	0	1	0	3
	濫	0	0	0	0	1	0	0	1	0	2
	水	705	307	824	987	502	1,097	352	608	107	5,489
	큰물	3	3	2	6	1	3	0	0	13	31
	작은물	2	0	2	4	1	3	0	0	0	12
	수재	0	0	0	0	2	4	1	0	0	7
	합수	6	4	11	8	2	17	7	2	0	57
	합강	0	8	10	2	0	2	0	3	0	25
	양수	16	3	2	6	6	17	3	10	1	64
	합천	0	1	3	2	2	4	0	5	0	17
	합포	0	1	0	3	0	0	0	0	0	4
	물미	8	2	11	7	0	1	5	4	3	41
	물넘이	0	1	0	0	2	0	0	0	0	3
	물탕	25	3	118	24	20	1	28	15	0	234
	드르니	0	1	0	0	0	0	1	5	0	7
	灘	64	47	33	24	35	46	96	30	2	377
	여울	108	84	25	21	57	16	110	26	0	447
	늪	63	33	58	125	5	0	30	5	2	321
	濕	3	0	0	3	0	0	2	0	0	8
	沈	6	0	3	2	1	6	0	5	1	24
	陷	0	0	0	0	0	3	0	0	0	3
	沒	3	3	3	7	2	3	1	6	0	28
	구렁	82	40	114	67	95	258	46	45	12	759
	구덩	9	3	5	7	17	15	0	1	0	57
	뚝방	5	3	50	77	82	674	23	45	1	960
	수렁	42	2	7	1	11	13	3	7	0	86
	坪	381	1	1,336	577	565	865	410	562	38	4,735
	野	64	43	119	78	31	102	12	90	1	540
	源	30	17	55	58	32	25	19	28	6	270
	둔덕	2	11	14	19	8	12	8	12	0	86
	버덩	25	175	8	10	1	10	0	1	1	231
	두돌	6	1	21	1	1	2	3	0	0	35
두둑	14	38	9	16	1	3	9	1	8	99	
기타	沙	195	160	440	260	150	330	127	230	22	1,914
	砂	28	9	31	19	9	19	6	47	2	170
	풍혈	1	0	2	2	1	1	1	0	0	8
계		1,935	1,015	3,366	2,437	1,662	3,584	1,324	1,814	220	17,357

관련 지명어 중에서 水는 다소간의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수록된 개체수가 가장 많았지만 전남과 경남에서 특히 우세하였고, 큰물은 유독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물탕과 물도리 등은 모두 경북 지역에서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양수는 전남과 경기도, 합수는 전남과 경북, 합강은 경북과 강원에서 출현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水 지명어 다음으로 수록 개체수가 많았던 坪과 野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북과 전남에서 탁월하여 경지면적이 넓고 농업적 기반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源은 경남과 경북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평야의 지방어인 두들도 경북에서 탁월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평야가 넓은 경북과 전남 지역의 공통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저지 및 습지 등과 관련이 깊은 들병과 구렁은 모두 전남 지역에서만 탁월하여 상대적으로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반 및 고도 등의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령은 경기도, 여울과 灘은 충북과 경기도, 높은 경남과 경기도에서 우세하였고, 버덩과 두둑은 모두 강원도에서 탁월하게 나타났다(그림 6).

그리고 바람이나 육수, 지형적 원인 등으로 토사가 쌓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토사와 관련하여 沙와 砂 지명어 모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沙는 경북과 전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반면 砂는 충남과 경북, 경기도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 낙석과 산사태 등과 관련된 지명은 수록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 중에서 落은 전남과 경북에서 많았고, 崖는 경북과 경기, 충

청도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낭떠러지와 벼랑 등은 경기도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지형재해와 관련된 지명 중에는 개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환경관이 반영되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지명이 있는가 하면 지역 고유의 입지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된 지명들이 많아 여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재해인식과 지명과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4.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전통적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농지개간은 물론 농경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물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堤, 堰, 泐, 방축, 池, 澤, 水庫, 井 등 다양한 수리시설을 발달시켜 왔다. 그런데 왕조실록, 여지도서, 읍지 등의 사료를 통해 농경사회의 주요 기반시설이었던 이러한 수리시설의 기능이 단지 관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경지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등의 다양한 방재 기능과 함께 비보 풍수의 기능까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현희·최기엽, 1990; 최원석, 2000; 최영준·홍금수, 2003; 정치영, 2008).

이에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유형적 빈도와 지역적 분포 관계는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더불어 그 대응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분된 13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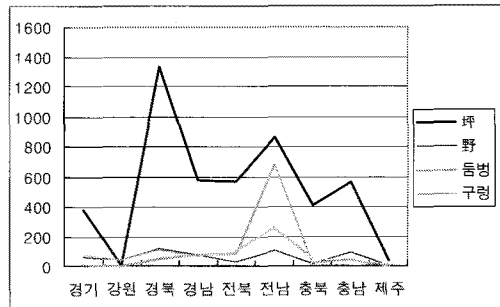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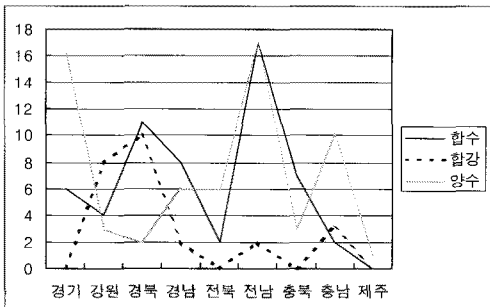


그림 6. 범람 및 침수 관련 지명어의 지역적 분포

표 4.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유형과 분포

유형	지명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방재	堤堰	0	0	0	0	0	2	0	2	0	4
	堤防	23	19	110	78	51	76	63	94	0	514
	防禦	65	7	5	0	11	20	8	75	1	192
	堤	18	12	389	36	799	763	57	117	0	2,191
	堰	4	0	4	6	4	79	0	30	0	127
	洑	87	17	581	305	250	524	137	223	0	2,124
	防	19	7	60	44	22	55	4	33	9	253
	築	3	2	2	7	4	14	1	2	4	39
	池	341	92	1,851	898	341	566	418	438	20	4,965
	방죽	520	2	1	1	1,308	1,015	246	351	1	3,446
	방축	116	50	12	7	15	25	26	21	3	275
	뚝	126	31	171	114	57	172	26	116	3	816
	독	115	73	90	88	26	194	28	15	17	646
계		1,437	312	3,276	1,584	2,888	3,505	1,014	1,517	58	15,591

의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어를 토대로 총 15,591개의 관련 지명을 확인하였다(표 4). 지명의 유형별 빈도는 池 지명이 4,96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죽이 3,446개, 洑 2,124개, 堤 2,191개로 뒤를 이었는데 이들 4개의 지명이 전체의 81.6%를 점유하였으며, 그 외 뚝, 독, 제방, 방축, 防禦, 防, 堰 등의 순으로 지명이 많았다. 특히 池 지명어는 수리시설은 물론 마을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었는데 그 중 마을명을 제외하고 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수지, 연못, 소류지 등의 지명만도 4,000개가 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명어로 나타났다.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3,50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3,276개, 전북 2,888개, 경남 1,584개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약 72.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남, 경기, 충북,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기상 및 지형재해 관련 지명의 분포 양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재해 관련 지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7>에서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서는 전체적인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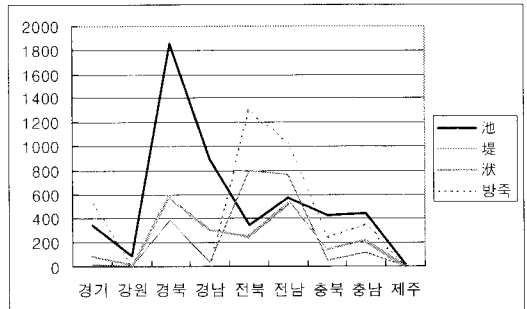


그림 7.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지역적 분포

우선 가장 큰 비중을 보였던 池 지명의 경우 경상도가 55.4%를 차지하여 여타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 반면 방죽과 堤 지명은 전라도에서 각각 67.4%, 71.3%로 탁월하게 나타나 지역적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특히 방죽이란 지명은 경상도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경북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수기능이 우세한 池가 많았던 반면 강수량이 많고 논의 면적이 넓은 전라도에서는 홍수와 범람에 대비하여 방수기능이 우세한 방죽과 堤가 보편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洑 지명은 경북과 전남, 堰은 전남, 堤防은 경북과 충남 등에서 우세하게 나타났

고, 유사한 뜻의 지명이라도 한자 防禦은 충남과 경기, 한글 방축은 경기도에서만 탁월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역적인 분포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지명어 중에 뚝은 전남, 경북, 경기, 충남, 경남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고, 독은 전남과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防은 경북과 전남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5. 사례 지역 연구

1) 전북 김제 지역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김제 지역의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은 모두 467개로 이 중 기상재해 관련 지명이 36개에 불과하였던 반면 지형재해 관련 지명은 150개,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은 281개로 나타났다. 먼저 기상재해 관련 지명에서는 洪, 소금, 火 지명이 각각 4개, 벼락, 寒 지명이 각각 3개, 홍수, 雨, 冷, 乾, 波, 鹽, 潮 지명이 각각 2개, 震, 霧, 露, 雪 지명이 각각 1개였다. 이를 재해유형으로 분류하면 호우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해, 냉해, 낙뢰, 가뭄, 해일, 조해 등의 순으로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형재해 관련 지명에서는 水(56)와 坪(49) 지명이 월등히 많았고, 이어서 구덩(9), 둑병(8), 沙(8), 구렁(6), 源(4), 물탕(4), 양수(2), 砂(2), 落(2) 지명 순으로 나타나 구릉성 산지가 많은 지형적 조건 때문에 크고 작은 수계망이 다수 분포하

고 평야지대가 넓게 발달한 지역이므로 범람 및 침수와 관련된 지명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수리 및 방재와 관련한 지명 중에는 방축과 堤 지명이 각각 116개, 99개로 여타 지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그 외에 池(22), 堤防(15), 湫(14), 뚝(8), 防(5), 防禦(2)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방축과 堤 지명은 물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은 독으로 범람과 홍수에 대비한 방수기능이 우수하였고, 지역적으로 백구면, 용지면, 백산면, 금구면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김제 지역의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는 지역의 입지 및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제 지역은 서해안에 접해 있는 전형적인 저기복성의 평야지형으로서 조석 간만의 차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하구를 중심으로 넓은 충적층을 형성하고 있다. 호남평야의 일부인 김제시 일원은 전체적으로 100m 이하의 해발고도를 보이며, 북쪽으로는 만경강, 남쪽으로는 동진강이 서해와 만나 감조하천을 이루고, 중앙으로는 동쪽의 백산저수지에서 이어지는 신평천과 남쪽의 두월천과 원평천이 모두 동진강으로 유입된다. 이 밖에도 김제 지역은 다수의 작은 수계들이 발달해 있고, 해안을 긴 저평한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수 범람 및 침수 재해와 관련한 지명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역에서 발간한 재해정보지도(<http://www.gimje.go.kr/>)와 1910년대 지형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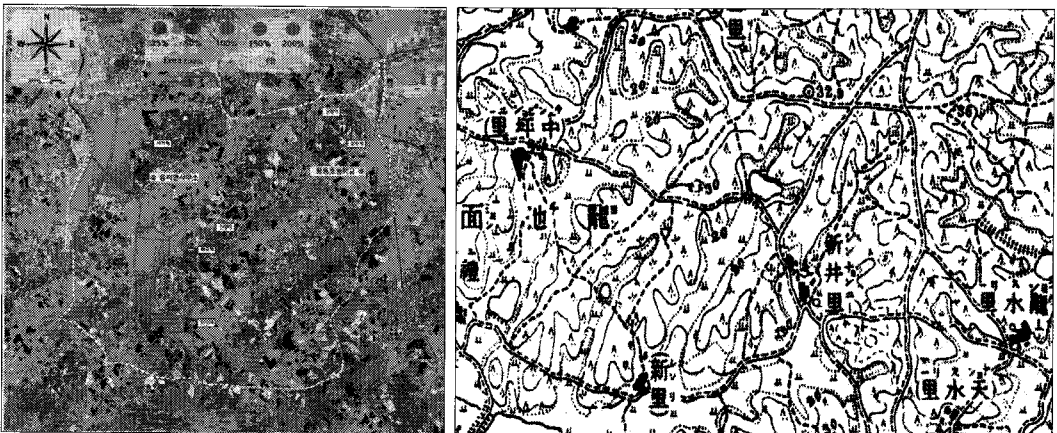


그림 8. 김제시 용지면 침수 흔적도(좌) 및 1910년대 지형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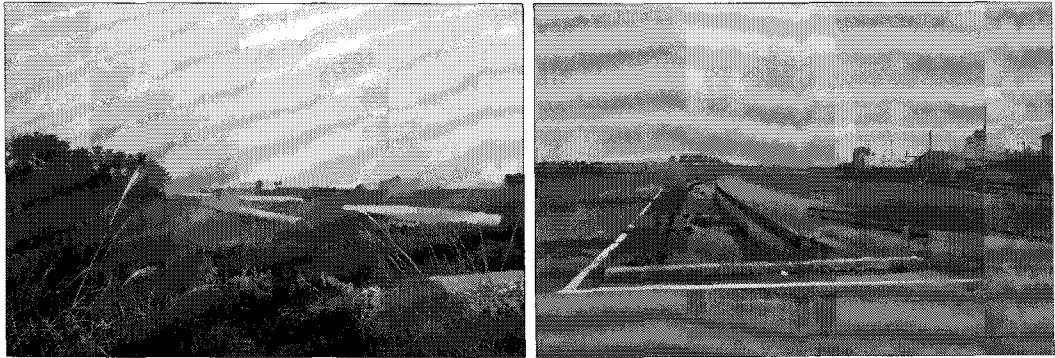


그림 9.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좌), 죽산면 홍산리(우) 주변의 내수 범람형 지형

그 가운데 용지면과 백산면 일대는 주변 구릉지의 유출수 집중으로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배수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완만하여 배수가 늦어지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침수 지역이다. 특히 현지조사를 통해 용지면 金坪里, 天水里, 龍水里 등에서 마산천의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백산면 水祿里는 만경강의 수위 상승으로 부용천, 용암천 등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침수가 발생하였고, 죽산면 洪山里 일대도 하수에 유입된 부유물로 인하여 배수로가 막히면서 침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또한 진봉면 古沙里 지역은 해안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상수내 마을과 고사리 주변은 1910년대 발간된 지형도 상에서 습지 또는 갯벌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간척된 지역이며, 특히 고사리 북쪽은 감조하천인 만경강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방 또는 해안 모래 퇴적층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봉남면 卞沙里는 배후에 소규모의 야산과 모악산 줄기가 이어지면서 배후산지에서 운반된 토사의 퇴적으로 평야지역이지만 드물게 산사태와 침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형적 특성이 지명에 투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2) 충남 연기 지역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동북단에 위치한 내륙지역으로 중북부 군 경계를 따라 오봉산, 금성산, 작성산, 영주산 등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해 있고, 그 안쪽으로는 금강이 군 남부를 남서-동북 방향으로

흐르고, 지류인 미호천이 중동부에서 남쪽으로 흘러 동면 합강리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그 외 군 전역에 뻗어 있는 쌍류천, 양화천, 봉암천, 연기천, 문주천, 노송천, 용수천 등의 크고 작은 지류하천의 물줄기가 중앙부로 모여 상당한 규모의 고복저수지를 만들고 있다. 요약하면 연기군의 지형은 조지원읍을 중심으로 중부이남 지역은 금강과 미호천에 의한 하천유역의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반면 중북부 지역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 북고남저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연기군의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은 모두 91개로 해안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평야지역인 김제시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인구 및 경지 규모, 촌락의 발달 차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명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기상재해와 관련한 지명이 12개인 반면 지형재해 관련 지명은 59개,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은 20개로 나타났다. 기상재해 관련 지명 중에는 寒, 風, 벼락, 雷 지명이 각각 2개였고, 冷, 水, 바람, 浪 지명이 각각 1개로 나타나 전체적인 비중은 낮았지만 재해유형으로 보면 냉해와 낙뢰, 풍해와 관련한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지형재해와 관련한 지명에서는 水(15), 沙(11), 坪(9)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여울(4), 구렁(4), 砂(4), 灘(3), 합강(3) 등이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도 물미, 늪, 둔덕, 둠벙, 野, 源 지명이 각각 1개로 나타나 범람 및 침수, 토사와 관련한 지명의 분포가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홍수나 가뭄 등에 대비하여 축조되는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 중에는 防築(5), 방죽(4), 池(3), 沓

(3), 방축(2), 제방(2), 뚝(1) 등이 발견되었다. 재해 및 방재 지명의 지역적 분포는 남면, 전동면, 금남면, 조치원읍, 서면, 동면, 전의면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특히 범람 및 침수, 수리 및 방재 관련 지명은 중북부 권역에 비해 금강과 미호천이 관통하고 있는 중부 이남의 남동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형적 특성이 지명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해에 대한 지역민의 경험적 인지를 토대로 지명과 재해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연기군의 『지명유래집』을 검토한 결과 54개의 지명유래에서 재해 및 방재와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금남면 11개, 남면 10개, 서면 9개, 조치원읍 8개로 많았고, 이어서 동면과 전의면, 전동면이 각각 5개, 소정면이 2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부에 비해 금강과 미호천의 영향권에 있는 중부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국지명총람』을 토대로 살펴 본 지역적 분포 특징과 유사하였다. 특히 중부이남 지역의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에서는 물이 많고, 침수 위험이 상존하는 지형적 특성에 기반을 둔 유래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금남면 대평리의 물난리와 수렁배미, 도깨비툼병, 갈마쌈, 조치원읍의 대홍수와 곤드기보, 오구미툼병, 주렁갯보, 동면의 합강과 물미, 진구렁, 서면의 장구덕과 지울구레, 남면의 진어울과 모듬내다리, 합강, 장군목툼병, 전의면의 수명구니, 수랑골 등이었다.

그 중 금남면 대평리는 “1946년 6월 약 800mm의 비가 내려 금강제방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면서 대평리 사람들이 용포리, 이암리 등으로 피하자 독이 터져 마을과 대평들이 삼시간에 침수되었다”고 전하며, 동면 예양리와 노송리에서는 “들판이 낮은 지역이라 비만 오면 물이 흥건하게 고인다”하여 진땅에서 유래된 물미와 진구렁 등이 발견되었고, 전동면의 보평이나 소정면의 검은들 등도 가뭄 걱정 없이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이라는 유래가 있어 연기군의 지명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과 관련된 지명유래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연기군 전역에서 제방 또는 방축과 관련한 지명유래와 벼락정이, 벼락마위 등 벼락과 낙뢰 등과 관련한 지명유래도 다수 발견되었다(조치원문화원, 2007).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필자들은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지명과 재해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원형에 기초한 재해 및 방재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을 대상으로 106개의 지명어를 검색한 결과 총 37,901개의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을 추출하였고, 그 유형별 빈도와 분포, 사례지역 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형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이 기상재해에 비해 월등히 많아 지명의 명명기반과 인식이 지형이나 입지 환경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재해유형별로는 호우, 가뭄, 낙뢰 등 강수 관련 지명과 범람 및 침수 지형 관련 지명, 방수 및 저수 시설 관련 지명 등이 여타 지명에 비해 탁월하여 호우, 범람, 침수, 가뭄 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명의 지역적 분포는 재해유형에 상관없이 영·호남 지역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 면적과 인구, 경지 규모, 촌락의 발달 등에 따른 지역성의 차이를 보였다. 넷째, 지명어별로는 보편적 환경관이 반영된 水, 沙, 野, 雨, 汎 등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 반면 둠병과 구렁, 여울과 灘, 池와 방축, 堤 등과 같이 환경지각의 차이가 뚜렷한 지명이 많아 지역의 입지 및 지형적 특성이 재해인식 및 지명에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사례지역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기상재해와 지형재해가 복합된 범람 및 침수 재해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부분 크고 작은 강 유역과 곡지형을 중심으로 발생함으로써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명을 통한 재해 및 방재 가능성을 형상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에 대한 시공간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상호 연동성을 높이고, 둘째, 환경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민의 방재 경험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함은 물론 각 지방의 읍지 및 재해자료, 지명유래집, 소유역권 연구 등을 통해 패턴 비교분석과 정성적 해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재해 및 방재 지명에 대한 언어학, 지명학, 지리학, 풍수학 등의 연계 및 협업 연구를 통해 이론적 틀을 강화하고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방언이나 고어 등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실례로 제주도처럼 언어의 지역색이 강한 경우는 지역별로 관련 지명을 정리, 목록화해야 한다. 다섯째, 하나의 지명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한글 지명에 대한 어휘와 어의 확인을 통해 언어적 한계를 보장해야 하며, 여섯째, 재해 및 방재 관련 지명어의 재검토와 보강이 요구된다. 실례로 물구덩이를 의미하는 둠병은 둔병, 툼병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처럼 쌍수, 쌍류, 쌍계, 두물, 筒, 陂, 川防, 川防淤, 물광(水庫), 관정(管井), 우물 등 관련 지명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명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지명과 재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재해 유형과 지명어의 분류, 재해 관련 지명의 추출 근거와 검증 등에서 분석적 한계가 적지 않았다. 이에 향후 재해지명 연구는 그 유래를 토대로 직접적인 재해관련 지명을 추출하고, 재해발생 지역의 지명이나 재해유형별 비중에 따른 상대적 재해인식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하고 실증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주

- 1) 192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災害』는 삼국사기, 고려사, 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동국통람, 해동택사, 동국기년, 지방 색지, 고대관측기록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뭄 및 기근, 홍수, 폭풍, 화재, 지진, 상해, 박해(雹害) 등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 2) 『한국지명총람』은 한글학회에서 1966년부터 1986년까지 남한 전역의 지명을 조사하여 발간한 총 18권의 지명집이다. 수록된 지명수가 63만 1,233개에 달하는 방대한 지명사전으로 지역별로는 전남 13만 7,605개, 경북 12만 1,484개, 경남 10만 881개, 경기 7만 6,513개, 전북 5만 9,376개, 충남 5만 4,180개, 강원 3만 3,945개, 충북 3만 3,445개, 제주 1만 3,804개가 수록되어 있다.
- 3) 『한국지명총람』의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4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의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다(<http://krcr.korea.ac.kr/>).

문헌

- 권영아, 2006, 최근 한국의 서리현상의 공간분포와 시계열 변화 경향, 대한지리학회지, 41(3), 361-372.
- 국립방재연구소, 2009, 온고지신형 방재대책 수립 방안 연구,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서울.
- 김선희, 2008, 『五萬分一地形圖』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1), 87-103.
- 김선희·박경·이해미, 2009,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실태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4(6), 706-722.
- 김연옥, 1986,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논총 49, 259-290.
- 김오진, 2008,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官民)의 대응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3(6), 858-872.
- 김주환·권동희, 1992, 환경재해, 신라출판사, 서울.
- 김지은, 2002, 지명과 지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산시 목(項)지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운, 2000,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 김현희·최기엽, 1990, 한국 전통관개시설의 유형과 입지특성, 응용지리, 13, 65-140.
- 남궁근, 1995, 재해관리 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 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957-979.
- 남궁봉, 1975, 만경강 유역 수리지역의 수리관행과 농촌, 지리학과 지리교육, 5, 1-47.
- 남영우, 1997, 두모系 古地名의 起源, 대한지리학회지, 32(4), 479-490.
- 박광국, 1997,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공무원·주민의 의식수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9(3), 581-602.
- 박정재, 2009, 해수면 상승 및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와 대응 방안, 국토지리학회지, 43(3), 435-454.
- 배선학, 2007, 2006년 인제군 집중호우의 원인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396-408.
- 소방방재청, 2009, 재난관리 60년사, 서울.

지명을 통해 본 재해인식 및 방재 가능성 탐색

- 심우배, 2005,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 방재, 국토, 281, 39-49.
- 옥한석, 1983, 조선시대 농업수리의 입지에 관하여 -경상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 방법, 석천이찬박사회갑기념논집, 559-567.
- 윤명오, 2004, 우리나라 재난발생의 특성과 소방 방재 대책의 발전 방향, 제9회 방재세미나 및 전시회, 12-36.
- 윤순옥·황상일, 2009, 삼국사기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자연재해와 가뭄주기, 대한지리학회지, 44(4), 497-509.
- 이광률, 2006, 집중호우에 의한 지형재해 분석과 지도화, 한국지형학회지, 13(3), 91-101.
- 이승수·장은미, 2009,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태풍 위험 평가, 한국GIS학회지, 17(2), 243-249.
- 이승호·이경미, 2008, 강원도 산지지역의 자연 재해 분포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6), 843-857.
- 이영택, 1986, 한국의 지명, 태평양출판사, 서울.
- 이은걸·이현영, 1998, 한국의 태풍재해의 공간 분포와 발생요인, 대한지리학회지, 33(2), 179-190.
- 장동호, 2006, 산사태 재해에 대한 보은지역의 시설물 위험분석, 한국지형학회지, 13(3), 63-73.
- 장정환, 2009, 해안침식에 대한 풍수론의 사신사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2), 15-38.
-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9, 59-79.
- 정치영, 2008, 『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의 지역적 특성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4), 620-637.
- 조강봉, 2002, 강·하천의 합류와 분기처의 지명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치원문화원, 2007, 연기군 지명유래집, 연기군.
- 조혜진, 2003, 도로상 위험안개의 특징 분석 및 발생지표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38(4), 478-489.
- 최영준·홍금수, 2003, 강화 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 38(4), 535-561.
- 최원석, 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수·서용철·송철호·권기혁, 2007, 방재지도의 기초와 응용, 대한측량협회, 서울.
- 통계개발원, 2008,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농림업총조사 종합분석보고서.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서울.
- 朝鮮の災害, 조선총독부(1928).
- Ferland, Y., 2007, *Toponymic standardization: problems for military and security uses*, ICC_proceedings, ICC 2007.
- Ko, I.Y. and Yao, K., 2000, *Semantically-Based Active Document Collection Templates for Web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ECDL 2000 Semantic Web Workshop.
- Levinson, S. C., 2008, Landscape, seascape and the ontology of places on Rossel Island, Papua New Guinea, *Language Sciences*, 30, 256-290.
- Lowenthal, D., 1975,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owards a geographical epistemology*, in Emrys Jones(editor), *Readings in Social Geography*, Oxford Univ. Press.
- Miller, E. J. W., 1969, The naming of the land in the Arkansas Ozarks: a study in culture processes, *Annals, A.A.G.*, 59, 240.
- Nadja P.S., 2008, Significance of toponyms with emphasis on field names, for studying cultural landscape, *Acta Geographica Slovenica*, 48(1), 33-56.
- Park, K. and Kim, S., 2010, A Study of Disaster Recognition Based on Disaster-related Place Names, *journal of the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17(2), 15-28.
- Tuan, Yi-Fu., 1974, *Topophilia*, Prentice-Hall, New Jersey.
- Wang, L., 2006,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s of Natural Disaster Spatial Information System for Government Agencies*, UNITED NATIONS E/CONF. 97/6/IP.

•교신 : 박경,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kpark97@
sungshin.ac.kr, 전화: 02-920-7139)

Correspondence : Kyeong Park, Department of Geog-
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eon-
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e-mail: kpark97@sungshin.ac.kr, phone: 82-2-920-
7139)

(접수: 2010.7.15, 수정: 2010.8.20, 채택: 2010.9.13)